【특별 기고 2】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현황

-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민현식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어문규범연구부장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이하 '국연')는 1998년 12월 20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고자 일본 국연에서는 세 가지 기념학술대회를 '98. 12. 14(월)~19(토)까지 1주일간 열었다. 본인은 이 학술대회 주제 논문인 '사전 편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평자로 국연의 초청을 받아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이에 현지에서 본 국연의 모습을 소개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도 생각하고자 한다.

패전 후 일본이 어문연구 기관을 만든 것은 전후 새로운 일본 국가의 출범을 통해 국민 어문 생활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일본 어문의 실태조사와 과학적,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연이 문부성 산하기관으로 생겨(1948. 12. 20. '국립국어연구소 설치법' 공포) 명치신궁 소유의 성덕기념회화관(聖德記念繪畵館)에 자리잡았다.

그후 1962년에 현 청사로 와서 1966년에는 '전자계산기실'을 준공하고 계량언어학적 연구를 추진했다. 1968년에는 문화청이 생기면서 문부성에서 문화청 산하기관으로 변하는데 현재 문부성 산하 문화청에는 문화부와 문화재보호부가 있고 문화부에는 국어과, 예술문화과, 지역문화진흥과, 저작권과, 종무과의 5과가 있다.

1975년에는 5개 연구부와 별도의 '일본어교육부'가 생겼는데 1976년에는 일본어교육부를 '일본어교육센터'로 개편하여 국제일본어교육 보급과 연구에 앞장섰다. 1988년에는 '국어사전편집실'을 신설하여 용례 말뭉치(코퍼스) 구축을 시작하였다. 현재 제6대 소장으로 카이무츠로(甲斐睦郎) 소장이 1998년 4월에 부임

하였다.

우리의 국립국어연구원이 어문규범부, 어문실태부, 어문자료부라는 3개 부로 조직되어 연구직 20명, 행정직 15명, 총 35명인 것과 달리 일본 국연은 1개 서무부, 5개 연구부 산하 11실과 이와 별도의 1 특별실(국어사전편집실), 1 센터(일본어교육센터)로 구성된다. 1 센터는 다시 4실, 1 특별부(일본어교육지도보급부 : 다시 2실로 구성)로 되는데 센터장은 국어연구소장 다음 가는 부소장의 서열이다. 다음은 국연의 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 서무부-서무과(서무계, 도서관, 인사계) / 회계과(총무계, 경리계, 용도계)
- 언어체계연구부(일본어 체계에 관한 연구)
  - 1 연구실 : 현대어 문법에 관한 조사 연구
  - 2 연구실 : 현대어 어휘에 관한 조사 연구
  - 3 연구실 : 현대어 문자, 표기에 관한 조사 연구
- 언어행동연구부(국민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 1 연구실 : 사회생활의 언어 사용 및 전달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 2 연구실 : 음성 및 문자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언어변화연구부(일본어의 지역적, 시대적 변화에 관한 연구)
  - 1 연구실 : 방언에 관한 조사 연구
  - 2 연구실 : 근대어에 관한 조사 연구
- 언어교육연구부(국민에 대한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
  - 1 연구실 : 언어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 정보자료연구부(국어 및 국민 언어생활의 정보 자료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연구)
  - 1 연구실 : 정보 자료의 평가 및 활용법 조사 및 정보 제공 연구
  - 2 연구실 : 정보 자료의 수집 보존법 조사 연구
  - 전자계산기 시스템 개발연구실 : 언어의 전산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국어사전편집실 : 용례 수집, 사전편찬 연구
- 일본어 교육센터 :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교육의 기초적, 실제적 연구, 기본 연수, 교재 작성, 지도, 보급에 관한 연구)

1 연구실 : 일본어 음성, 문자, 어휘, 문법에서 일본인 언어행동 연구
2 연구실 : 일본어와 구미언어와 대비 연구(모국어별, 학습목적별 교육방법 연구)
3 연구실 : 일본어와 동남아 언어와 대비 연구(〃)
4 연구실 : 일본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대비 연구(〃)

- 일본어 교육지도보급부(일본어 교육센터 소속)

일본어교육연수실 : 일본어교육 종사자에 관한 연구, 연수회 개최
일본어교육교재개발실 : 교재, 교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재, 교구 작성 제공

정원은 지정직 1명(소장), 행정직 15명, 연구직 50명 총 66명으로 되어 있고 위 정원과 별도로 비상근연구원 42명(주로 국어사전편집실 조사원 8명과 일본어교육센터의 30여 명)이 있다. 자문기구로는 20인 정원 4년 임기의 평의원회(회장, 부회장 각 1인, 평의원 18인)와 일본어교육센터 운영위원회(11인)가 있고 전임 소장과 연구부장들로 구성된 명예소원(名譽所員) 제도가 있다. 최근 10년간의 정원 변화를 보면 1988년에는 72명이었다가 계속 줄여 현재의 66명에 이른다.

총 18개인 실(室)의 상근 연구원은 실장 1인, 주임연구관 또는 연구원 1-3인으로 구성되며 비상근연구원과 다른 성격의 비상근 연구보좌원들(연구소 전체 5인)이 일부 실에 있다. 그리고 부장 중에 2명은 산하 연구실장을 겸임하고 있고 일본어교육센터장은 산하 3, 4 연구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무부의 경우도 15명 외에 4명의 비상근 보좌원이 있는데 2개 층 규모의 방대한 장서(10만 8,500권)를 갖춘 도서관은 서무과 산하 서무계의 계원 1명과 비상근직원 1명이 관리하며 정보자료연구부의 연구관 1명이 지원할 뿐인데 완벽하였다. 특히 이 도서관은 50년 역사의 국연이기에 일본어학 관련 도서의 총정보센터 역할을 하여서 전국 각 대학 간행물은 물론 전 세계 학회지에 이르기까지 잘 갖추고 있는데 한국 도서관들의 책들이 서가에 쓰러진 것 투성이인 것과 달리 단 한권도 쓰러진 것 없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국연의 1년 예산은 1998년에는 10억 724만 7천엔(한화 약 100억원)이며 이 중에 인건비는 5억 9천만엔, 사업비는 4억 1,719만엔이다. 현 위치에 1962년부터

있어 온 연구소의 시설을 보면 3,340평 부지, 3동의 건물, 2동의 창고로 연건평 3,200평 규모이다.

국연의 연구 특성은 (1)인문 연구에서 드문 실(室) 중심 공동연구, (2)언어생활, 언어행동 조사에 이용하는 사회조사방법적 연구, (3)계량언어학적 연구, (4)전국적 방언 연구, (5)아동과 학생들의 언어능력 발달 연구, (6)국어연구소 연구 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국연 연구원들이 전국 대학에 교수로 200여명이나 나가 활동하고 있어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더라도 연구자로 전국적, 조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1998년도의 1년 연구 사업만 해도 총 18개 실, 50명의 연구원이 39개(26개 계속, 13개 신규) 과제를 진행하여 1-2명당 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39개 중에 21개가 일본어교육센터의 연구과제라 국연이 국제일본어교육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다. 국연의 주요 과제를 다음에 몇 개만 소개한다.

일본어의 변화 예측에 관한 기초적 연구(계속)/ 단어 사용 빈도를 규정하는 제요인에 대한 기초적 연구(신규)/ 학교에서의 敬語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계속)/ 일본인의 口語에 관한 종합적 연구(계속 : 8년간 연구)/ 대량 일본어 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계속)/ 일본어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계속)/ 일본어 교육교재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신규)/일본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신규) …

국연의 연구물은 1997년까지 나온 것을 보면 종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데 우리가 국어연구원 예산으로 발행, 무료 보급하는 체제인 것과 달리 국연은 주요 출판사에서 유료판매를 하는 것이 다르다.

(1) 국어연감 : 1954년부터 발행.
(2) 국립국어연구소 보고서 : 국연의 대표 연구총서로 1950년 이래 114종이 나왔음.
(3) 일본어와 외국어의 대조 연구 시리즈 : 1994년부터 6권 나옴(이 중에 일본어와 조선어 대조 연구서가 제5권, 제6권으로 나옴).

(4) 일본어과학 : 1997년 창간 연 2회 발행.

(5) 국어연구소 자료집 : 총 12차 자료집이 나옴. 이 중에 '오키나와어 사전'(5차), '분류어휘표'(6차)가 있고 10차 자료집 '방언담화자료'는 다시 10권으로 나누어 1978년~1987년까지 나왔는데 각지 방언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일본언어지도 어형 색인'(11차), '일본방언친족어휘자료집성'(12차)도 주목된다.

(6) 국어연구소 언어처리 데이터집 : 1985년부터 '분류어휘표, 중고 교과서 어휘조사' 등 현재 6권까지 나옴.

(7) 국어연구소 국어사전 편집자료 : 1900년대 초엽부터 나온 교과서, 잡지에 대한 말뭉치(코퍼스)를 구축하는 야심찬 사업의 결과 국정 교과서 영인본을 '국정용어독본총람'(1-12권)이라 내고 검색용 CD-ROM까지 만든 자료다.

(8) 일본어 교육지도 참고서 : 1975년부터 현재 21종 발행. '일본어 문법, 일본어 교수법, 방언과 일본어교육' 등의 저서가 나왔다.

(9) 일본어 교육용 교육자료 : 일본어교육영화 기초편(1974년~1983년까지 16밀리 영화 5분용, 30편을 제작), 영상교재 중급편(1986년~1989년까지 16밀리 5분용 24편 제작), 영상교재 초급편(1993년부터 비디오 방식으로 40편 제작)

(10) 문부성 과학연구비 지원 보고서 : 1980년-현재까지 어휘, 문법, 표기, 언어생활, 언어행동, 음운, 음성, 방언, 정보처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 57종이 나와 있다.

(11) 기타 : 국어학회-국어연구소 공편 일본어 연구문헌목록, 색인. 국제심포지엄 보고서, 연수 자료 등.

한편 이번의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걷자 일본어의 세계를'(歩こう 日本語の世界を)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국내에 학술대회가 많지만 세 가지를 1주일 내내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13일 출국하여 19일 귀국하기까지 동경 시내 구경은 엄두를 못 냈다.

12.14(월) 국어연구소의 국어사전편집을 위한 용례 데이터베이스 등 14건 발

표. '사전 편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논평을 함.

12.15(화) 연구실 공개/ 창립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일본어연구의 신영역과 국어연구소/ 50주년 기념식

12.16(수)~17(목) 제6회 국제심포지엄 :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어'(장소:국제연합대학).

이 심포지엄은 일본어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는 대회인데 세계의 일본어 학습자는 한국이 80만으로 1위이고 중국이 25만으로 2위라 한국의 일본어 학습열이 가장 높다. 17일 오전에는 동경 외곽 우라와에 있는 일본어 국제교육센터(이 기관은 국연의 일본어교육센터와 달리 외국의 일본어 교원 초청 연수 기관임)를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이한섭 교수님의 안내로 가서 시찰하였다. 모든 자료가 완비된 도서실과 어학실습실, 최신 숙소가 인상적이었다.

12.18(금)~19(토) '제2언어 작문에서의 제1언어의 영향 : 일본어 작문 말뭉치 구축을 위한 세미나'.

이 세미나는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 오류를 파악하고 지도법을 개발하기 위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추진하는 연구 과제에 따른 세미나로 참석자는 한국, 중국, 일본의 20여 명 학자들이었는데 말뭉치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난제거리였다.

세미나를 끝내고 저녁이 되어 관광 버스로 아사쿠사 거리의 절 천초사(淺草寺)를 방문했다. 차 속에서 국어연구소 직원들에게 버스비 1,000엔, 회식비 3,000엔씩 걷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나라 같으면 직원들은 외빈 초청 행사에 같이 어울려 공짜로 먹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이 행사의 실무 책임자인 일본어교육센터장부터 돈을 내고 차 속에서는 두 직원이 영수증을 떼어 주는 것을 보고 공과 사가 철저한 이곳 공무원들의 태도에 많은 것을 생각했다.

짧은 체류 기간이었지만 일본 국어연구소와 비교하여 국어연구원이 장기적으로 해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1) 연구원의 장기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국어 사전 사업 : 앞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증보는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누구나 사전 용례, 뜻풀이 등에 대한 비판, 정보 제공을 전자우편으로 받

아 연구원에서 사정, 수정하는 체제가 효율적이다. 국어연구원에서 민원에 독자적으로 답변하듯이 문제 어휘도 일일이 국어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체 사정 기능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한자 사전이라든가, 특수 국어 사전류의 제작, 가령 단어별 어형, 의미 변천사를 밝힌 어휘사 사전의 발간과 국어사 자료 총람 발행 등을 통한 역사국어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용례 말뭉치도 학자, 출판사 등 전 국민이 활용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② 국어 정보화 사업 : 국어정보학의 중심기지로 체제를 변화시켜 산학 협동과 계량언어학 연구 발전에 힘써야 한다.

③ 국어 세계화 사업 : 일본 국연이 국제일본어교육의 중심 구실을 하듯 국어연구원도 국제한국어교육 연구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시험 제도 주관, 언어권별 교재 개발, 교수법, 언어유형론적 국어 연구, 국어와 각 언어별 대조언어학적 연구 등도 해야 한다.

④ 국어 표준화 사업 : 규범문법, 표준어 추가 사정, 내외국인용 국어문법의 정밀화가 필요하다. 특히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 즉 사각지대에 놓인 사정(査定) 대상이 너무 많은데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의 비상설 국어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매우 비능률적이므로 종합국어대사전 증보 과정에서 국어연구원 내에 자체규범심의위원회를 두어 즉각 사정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응용 국어학 사업 : 국어심리학(내외 국민의 한국어 의식 조사), 사회언어학(위상어, 성별어, 계층어, 세대어, 지역어 실태 조사) 등의 응용 영역도 개척해야 한다.

⑥ 국어교육학 사업 : 국어교과서는 물론 작문, 독서, 화법 이론 및 지도서 개발을 한다.

(2) 2~3년 단위의 중기 연구, 팀별 연구와 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

(3) 연구과제의 중간 발표, 최종 발표를 통해 연구원 단독 연구로 인한 주관적 오류를 예방하고 객관적 우수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물도 일련번호를 붙여 〈국어연구원 연구 총서〉로 유료로 판매해야 한다.

(4) 연구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 일본 국어연구소와 같은 외국 언어교육기관과의 장단기 연수 교류를 해야 한다.

(5) 장기적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사전편찬실의 독립 기구화, 국어정보센터,

어문 연수부 설치 등이 필요하다.

(6) 국어연구원 건물이 '국어 박물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가 주관하는 한글날 기념 전시 행사를 본부에서 기획할 때 자료전시물을 행사 후 폐기하지 말고 축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하면 경제적이다. 앞으로 전시실도 갖추고 고서 및 귀중 자료 기증도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을 이번 국연 50주년 행사에 초청해 준 국어연구소 일본어센터장 나카노(中野 洋) 선생의 후의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양 연구소간에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인의 일본 체류 기간 중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이한섭(李漢燮) 교수님, 가톨릭대 일어일문학과 강석우(姜錫祐) 교수님, 일본 국어연구소의 조대하(趙大夏)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